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가장 존경받는 기업’ 1위

삼성전자 서비스센터가 ‘2026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조사에서 15년 연속 1위에 선정됐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올해 조사에서 ▲서비스 신뢰도 ▲서비스 혁신성 ▲고객 만족 활동 ▲사회 공헌 등 12개 조사 항목 모두에서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삼성전자서비스센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설 맞이 복조리 걸기 행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0일 설 맞이 복조리를 국내 주요 사업장에 걸쳐 고객들의 행복을 기원하는 행사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양사는 이날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위치한 각사 탑승 수속 카운터와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아시아나항공 본사 등 국내 주요 사업장 총 8곳에 복조리를 걸었다.

/대한항공



NHN, 성남 관내 노인복지관에 AI 바둑로봇 기부

NHN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지역사회 디지털 돌봄 지원의 일환으로 성남시 관내 노인종합복지관 6곳에 인공지능(AI) 바둑로봇을 기부했다고 10일 밝혔다. (왼쪽부터) NHN 김재환 정책지원실장과 성남시 김순신 복지국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NHN



BGF리테일-경찰청, ‘시민영웅 시상식’ 개최

BGF리테일이 경찰청과 함께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BGF 사옥에서 ‘2026년 시민영웅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아동안전 시민영웅’으로는 박한균 씨와 심우철 씨가, ‘CU 엔젤스 특별 시상’은 권대근 CU경주초당길점 점주가 선정됐다. 민승배 BGF리테일 대표이사(맨 오른쪽)가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BGF리테일



중소사랑나눔재단, ‘희망드림장학금’ 전달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은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예체능·인문계·이공계 분야 장학생 총 80명을 선발해 1인당 200만원씩 장학금을 지원하는 ‘2026 희망드림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손인국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이사장(앞줄 왼쪽 세번째)이 장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주요기업 설 상생 행보

한화그룹, 협력사 대금 1790억 조기지급

김승연 회장 ‘함께 멀리’ 철학 실천 주요 계열사 지역사회 나눔 활동

한화그룹은 설 연휴를 앞두고 약 1790억원의 협력사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계열사별 지급 규모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745억원, 한화오션 553억원, 한화 건설부문 117억원 등이다.

한화그룹 계열사들은 협력사의 자금 운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설, 추석 명절마다 대금을 조기 지급해 왔다. 작년 설에는 약 1700억원을 조기 지급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협력사의 근로자도 한화의 식구이고, 지역사회도 한화의 사업 터전”이라면서 “멀리 잘 가려면 함께 해야 합니다”라고 한화

그룹의 상생경영 원칙인 ‘함께 멀리’의 철학을 강조한 바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오션, 한화솔루션 등 주요 계열사들은 명절을 앞두고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도 계획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창원, 여수, 보은 등의 사업장에서 지역 어르신과 소외계층에게 쌀과 생필품 등을 전달한다. 한화오션과 한화솔루션도 거제, 울산, 여수의 사업장에서 지역민, 고객사 직원 및 가족 등과 함께 명절음식 나눔 등 후원 행사와 환경정화 행사를 개최한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SKT, 네트워크 유지·보수 업체 등 재정부담 완화

1120억 규모 대금 조기지급

SK텔레콤(대표 유영상·사진)은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협력사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SK브로드밴드와 함께 약 1120억 원 규모의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기 지급 대상은 네트워크 공사·유지보수, 서비스 용역 등을 수행하는 500여 협력사와 250여 유통망으로, 대금은 당초 지급일보다 최대 3주 앞당겨 설 연휴 이전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중소협력사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왔다. ‘동반성장펀드’는 회사가 출연한 예치금의 이자를 활용해 협력사의 대출 금리 부담을 낮추고 긴급 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로, 최우수 협력사의 경우 무이자 대출을 제공해 평균 5.2%포인트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대금지급바로’ 제도는 거래 대

금을 지출 승인일로부터 2일 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이라면 별도 조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대금 규모에도 제한이 없어 협력사의 자금 운용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SK텔레콤은 임직원 복리후생 지원, 채용 및 교육 지원, ESG 경영체계 구축 지원 등 중소파트너사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지난해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유지했다.

/김서현 기자 seoh@

아모레퍼시픽그룹, 400여개 협력사 자금난 해소 지원

280억 규모 거래대금 순차지급

아모레퍼시픽 그룹은 설 명절을 앞두고 280억원 규모의 거래 대금을 협력사에 조기 지급한다.

이번 지급 대상은 아모레퍼시픽 그룹의 9개 계열사에 원부자재, 용기, 제품 등을 공급하는 400여개 협력사다. 오는 20일까지 지



급 예정이던 280억원 규모의 거래 대금을 1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아모레퍼시픽 그룹은 2000년대 중반부터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돕고자 명절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거래 대

금을 조기 지급해 왔다.

이상목 아모레퍼시픽홀딩스 대표(사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 수요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들의 자금난 해소를 지원하고자 예정 지급일보다 많게는 10일 빨리 납품 대금을 지급한다”며 “앞으로도 협력사와 상생하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mlee236@

오뚜기, 협력사에 현금 138억 분다

하도급대금 지급 50여일 앞당겨

오뚜기가 설 연휴를 앞두고, 협력사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약 138억원의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조기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은 하도급 업체의 명절 전·후 자금난 완화 및 경영 안정을 위한 것으로 지급 대상은 OEM사, 원료업체, 포장업체 등 36곳이다. 오뚜기는 당초 지급일보다 약 50여일 앞당겨 하도급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오뚜기는 협력사와의 상생과 동반 성장을 위해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다.

명절마다 협력사 결제대금을 조기 현금 지급하여 협력사의 자금난 해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협력사와 대리점 대상으로 동반성장 펀드를 조성해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협력사의 품질 역량 및 ESG 역량 강화를 위해 산업안전 예방 활동은 물론, ESG 진단 및 환경 분야 지표 강화 등을 통한 ESG 컨설팅도 병행하고 있다.

홈앤쇼핑 중소기업 유동성 공급

홈앤쇼핑이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협력사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판매 대금 조기 지급에 나선다.

10일 홈앤쇼핑에 따르면 조기 지급액 규모는 총 250억원 가량으로 1000여개 협력사는 당초 예정일보다 앞당겨 대금을 수령한다.

홈앤쇼핑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안정이 곧 홈앤쇼핑 본연의 가치이자 정체성”이라며 “앞으로도 파트너사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



‘도담샌드’

/현대위아

현대위아 “‘도담샌드’ 만나보세요”

경남 농산물 활용 먹거리 선봬

현대위아가 경상남도의 농가와 함께 지역 먹거리를 선보인다.

현대위아는 경남 지역의 대표 농산물을 활용해 만든 샌드 쿠키인 ‘도담샌드’를 10일 출시했다.

이번에 선보인 도담샌드는 지난해부터 약 1년 동안 경남도청, 지역 농가, 경남도민과 함께 도담샌드의 기획에서부터 재료 선정, 최종 완성과 마케팅까지 함께 준비했다. 아울러 멸종위기종인 담비를 모티브로 한 현대위아의 마스코트 ‘도담이’를 활용, 친근한 디자인과 함께 생태계 복원의 의미를 도담샌드에 담았다.

현대위아는 도담샌드 판매로 생긴 수익을 ‘조록숲 조성’을 위해 전액 기부할 예정이다. 지난해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산을 복원하고 이를 통해 담비 등 지역의 멸종위기 동물이 살 환경을 만들어 갈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

GS칼텍스 ‘존경받는 기업’ 조사 뉴에너지 부문 1위 선정

GS칼텍스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한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조사에서 뉴에너지 부문 1위에 2년 연속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GS칼텍스는 수소, CCS, 폐플라스틱 리사이클링, 무탄소 스팀 및 재생 에너지, 바이오 연료 등 저탄소 신사업을 확대하며 에너지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아울러 무탄소 스팀 도입과 재생에너지 PPA 계약을 통해 공정 전반의 탄소 배출 저감에 나서고 있으며, 글로벌 연료 시장 환경에 맞춰 바이오 항공유, 바이오디젤 등 바이오 연료 투자도 강화하고 있다.

허세홍 GS칼텍스 부회장은 “저탄소 신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속 가능하고 수익성 있는 성장을 바탕으로 존경받는 100년 기업을 향해 도약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김민술 인턴기자 mnskim@

부음

▲최봉조씨 별세, 이종수(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장)·이종영·이현주·이연주씨 모친상, 김정인·오선아씨 시모상, 김홍창·윤문수씨 장모상 = 9일 오후 10시 30분, 영남대의료원 장례식장 특301호실, 발인 12일. 053-620-4670
▲김은주씨 별세, 김향순·김수덕·김용건(선교사)·김수정·김수경씨 모친상, 홍태의·최승권·신형호(LSE 부장)·김영환(오피스넷 본부장)씨 장모상, 정선희씨 시모상 = 10일 0시 50분, 수원 연화장 장례식장 203호실, 발인 12일. 031-218-6560